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양 무 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지난 3월 3일 유엔안보리는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를 채택했다. 주요 내용은 무기 거래 금지, 제재 대상 지정, 확산 네트워크 구축, 해운·항공·운송 검색 의무화, 생화학무기 프로그램 포기, 대량살상 무기 수출 통제, 대외교역 제한, 금융거래 중단, 금수 대상 사치품 목록 확대 등이다. 대북제재 조치는 한국의 입장이 80% 반영되고 중국의 입장이 20%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2270호가 채택된 지 4개월째 접어들다. 제재 효과에 대한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대북제재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 또는 징후는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지도지나 정권의 공식적인 활동, 둘째 급격한 시장물가 상승 및 환율 변동, 셋째 대외무역의 감소폭, 넷째 주민들의 불만

대북제재 효과가 별로 보이지 않는다

고조, 다섯째 핵문제에 대한 북한의 입장 변화 등이다. 정부는 이제 서서히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주장한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효과는 별로 없다며 오히려 역효과를 우려한다.

김정은 위원장의 현 지지도를 비롯한 당·국가 차원의 대외활동은 활발하다. 김 위원장은 제7차 당대회를 통해 법적 제도적인 장기집권의 토대를 마련했다. 남은 것은 주민생활 향상을 통한 실질적인 주민들의 지지와 직접 연관된다.

대외활동도 정상적인 움직임을 보인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김영남 위원장은 아프리카의 우방국 적도기니 공화국을 방문했다. 당중앙위원회 김영철 부위원장은 쿠바를 방문했다. 운병세 장관도 쿠바를 방문했다. 쿠바를 둘러싼 남북한의 외교전이 시작됐다. 쿠바에서는 의리를 중시하는 혁명세대와 실리를 중시하는 혁명 2세대 간의 논쟁이 뜨겁다. 아직 쿠바가 북한과 단교하고 한국과 수교한다는 소식은 없다. 쿠바는 혁명세대가 전권을 장악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수용 부위원장은 중국을 방문했다.

시진핑 주석과 만났다. 제7차 당대회 결과를 설명하면서 양국 간 당 대 당의 관계 복원에 합의했다. 북한은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동북아협력대회에 최신회 부국장을 파견했다. 최 부국장의 방중은 대화든 대결이든 모두 준비되어 있음을 과시하는 측면도 있지만 주외교 중국에 대한 배려도 담겨 있다.

오는 7월 1일 중국 공산당 창당 95주년과 11월 북중우호협력조약 체결 55주년을 맞아 양국 최고지도자 간의 축전 정치와 고위급 상호 교환방문이 복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물가와 환율도 큰 변동이 없다. 5월 기준 쌀 1kg에 북한 돈 4500원에 거래됐다. 환율도 1달러에 북한 돈 8400원에 교환됐다. 평양의 택시는 점점 늘고 있다는 소식이다. 지난 4월 기준 북중 간 무역 총액은 4억3000만 달러 알려졌다. 전년 동기 대비 10% 감소된 수치다. 무연탄의 대중 수출 감소가 핵심적 품목이다. 대북제재의 효과인지 중국의 쇠단수요 감소의 영향인지 깊은 분석이 필요하다. 철광석의 대중 수출은 늘어났다. 항공유류의 대중 수입량은 10배 이상 증가됐다.

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는 있어도 조직적인 저항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식량이 다소 부족하지만 비축미를 풀었다는 소식은 없다. 봉사무역을 하는 해외 취업원들의 탈북 숫자는 조금 늘었다. 대북제재의 효과라기보다 해외에서의 비사회주의 생활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핵문제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불변이다. 핵탄두 폭발실험과 다양한 종류의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경제 건설·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당규약에 명시했다. 비핵화는커녕 핵능력 강화로 가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구상하는 제재효과와 경로는 간단하다. 제재를 하면 북한 정권이 불안정하고, 결국 정권 유지를 위해 핵을 포기하는 결단을 내린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제재를 하면 북한 정권이 불안정하고, 불안정한 정권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결국 민중 봉기로 인해 정권이 붕괴된다는 것이다.

포괄적 제재는 제재 대상국의 정책 결정자가 아닌 일반 국민들이 고통을 받는다. 국민들은 자국의 권력자가 아닌 제재를 부과한 유엔안보리나 제재를 주도한 국가를 원망한다. 대북제재의 효과는 국제사회와 북한주민들의 호응이 있을 때 배가된다. 대화와 제재의 병행 전략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社說

美 정부 광주항쟁 진상규명 협력 주목된다

80년 5월 민주화운동의 진실 규명에 주한 미국 대사관 측이 전향적인 협조를 약속했다고 한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는 어제 5·18기념재단을 방문해 차명석 5·18재단 이사장, 김양래 상임이사 등 재단 관계자들을 만났다. 재단 측은 이 자리에서 5·18 당시 보안사령관(부안사)이 작성해 주한미군 측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광주 상황보고서’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 리퍼트 대사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문제의 자료는 보안사가 80년 5월 15일부터 5월 30일까지 작성한 문건으로, 주한미군을 거쳐 미 대사관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의 비서실장이던 허화평 씨 등 보안사 관계자 2명이 문서 작성의 장본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재단이 이 보고서를 주목하는 것은 김취진 5·18 관련 사실이 담겼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계엄군이 80년 5

월21일 금남로에서 시민들에게 총을 쏘도록 명령한 지휘부와 그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한 인사를 비롯해 도청 진압 과정 등 역사적 진실이 담겨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1995년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 제도적 명예회복에는 진전이 이뤄졌지만, 아직 ‘광주항쟁 10일’의 역사는 온전하게 복원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시민들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는 발포 명령자는 가려지지 않고 있다. 그 만행의 수괴로 지목되는 자들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여전히 허튼소리를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대사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문건을 단순 보고서가 아니라, 역사의 한 조각일 수 있다. 광주 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36년이 됐음에도 밝혀지지 않는 광주항쟁 역사 규명 작업에 미국 대사관 측의 협조를 기대한다. 광주, 대한민국과 진정한 역사의 동반자가 됐으면 한다.

김해공항에 4조 원 그렇다면 무안공항은?

우여곡절 끝에 영남권 신공항 건설 계획이 김해공항 확장안으로 결론나면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가 화두로 떠올랐다. 인천·김포-김해-무안공항을 잇는 3각 축의 거점 하늘 길을 공고하게 할 필요가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동안 논란이 컸던 부산 가덕도-경남 밀양 신공항 건설 대신 기존의 김해공항을 대대적으로 개조하기로 했다. 오는 2026년까지 4조 3800억 원을 들여 3200m 규모의 새로운 활주로 1본에다 터미널과 관제탑까지 신설해 신공항 수준으로 탈바꿈시킨다는 복안이다.

이 계획이 발표되면서 국토 서남권의 관문인 무안국제공항도 시설과 기능을 확충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김해공항 확장으로 항공 물류 처리 능력이 수도권과 영남권에 쏠릴 경우 뒤따를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중국과 동남아와 가까운 서남권의 무안공항 위상을 높여 우리 경제 제도와역과 균형 발전을 꾀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크다.

지난 2007년 무안공항 개항 시 정부는 광주공항 국제선용 무안으로 이전하면서 중국, 동남아, 미주, 유럽 노선 등을 제주공항과 같은 수준으로 개방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무안공항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있어 김해공항을 확장해 주문의 당위성은 충분하다.

따라서 정부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 노선의 무안공항 경우, 활주도와 터미널 등 시설을 대대적으로 개선하고 물동량의 효율적인 배분을 적극 서둘러야 할 것이다. 더불어 광주-무안공항 통합 전제조건인 군 공항 이전 사업에도 예산 지원 등 정부 차원의 뒷받침이 따라야 한다.

전제적으로 꺾임새 있는 항공물류 체계 형성을 위해서는 정부의 선제 조치 가 우선이다. 무려 4조 원이 넘는다는데, 김해공항에만 그렇게 편중 투자하면서 무안공항 활성화는 ‘나 몰라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종교칼럼



정 세 완
원불교 농성교당 교무

고마운 마음으로 살자

명 중 전남이 4만3511명으로 72.65% 희생됐고 영광군이 2만1225명이 희생됐습니다.

한국전쟁으로 이념의 벽은 더욱 튼튼해졌고, 안보의 논리가 다른 어떤 가치보다 앞서며, 6·25전쟁 66년이 지난 지금도 안보의 논리가 한국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원불교에서는 6월1일은 원불교를 개교하신 소태산 대종사의 열반일입니다. 그래서 매년 6월1일이면 원불교 모든 교당에서는 소태산 대종사를 비롯한 역대 선 지의와 열반한 교도들의 합동 향례가 있습니다.

옛말에 ‘산은 겹산이 명산이요, 사람은 겹사람이 명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계룡산이 명산인 이유는 겹산이면서 산의 지형이 근본을 뒤 돌아보는 회룡 고조하는 형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왕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추원보본(追遠報本)은 우리들의 뿌리를 되돌아보며 조국을 위해 돌아가신 영령들의 은혜에 보은하며 전란의 외중에 억울하게 희생된 영혼들을 위로하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6·25 한국전쟁 66주년에도 한반도는 종전이 되지 못하고 분단 상태를 유지하며 서로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있습니다. 대다수 국민은 통일을 원하나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들과 일부 위정자들은 자신들의 이익과 정권의 연장을 위해 적절히 그 상황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차례상과 결혼식 후 폐백에 꼭 필요한 것이 밥입니다. 밥은 근본을 상징합니다. 밥나무는 심고 첫 수확을 얻기 전까지 땅속의 종자 밥이 썩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본을 잃지 말라는 뜻에서 차례상에 올리고 폐백의 담례로 시부모들은 신부의 치마 폭에 던져 줍니다.

6·25 한국전쟁 66주년에 근본을 생각하며 은혜에 보은하는 것은 이제는 서로 용서하고 무력통일을 위해서 서로에게 총부리를 겨누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한을 풀며, 제도적으로 적대의 구조를 파타하는 것입니다.

법계향화(法系香火)는 ‘향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음의 향불을 이어가자’라는 의미입니다. 옛말에 ‘땀 떨어지면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에서는

믿는 마음을 최고의 덕목으로 꼽습니다. 또한 유가에서는 위패를 밥나무로 만든다.

원불교 3대 종법사인 대산종사께서 겨울철 유리창에 하얗게 된 성애를 보시고 “안과 밖을 연결해 주는 난방용 파이프가 바로 신심(信心)이다. 아무리 나와 가까이 있어도 신심이 없으면 밖과 같이 추울 것이고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신심이 있으면 보일러 파이프가 연결 되었듯이 훈훈할 것이다”고 하셨습니다.

6·25 한국전쟁 66주년을 맞이해 국가가 국가답고 국민이 국민다운 사회를 희망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이제는 이념의 정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공감합니다. 위정자는 백성들 편에서 정치를 해주어야 백성은 국가를 믿고 국가는 국민들에게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 권력이 나오는 소중재를 알아 상대적 약자들이 소외받지 않고 보호받는 사회가 되어서 모두가 잘사는 사회가 돼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한이 없는 세상,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지상낙원의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기 고



오 세 원
광주대성여고 2학년

미래주역들이 역사 배우기 앞장서야

스승이고 미래의 거울이다.

“이 연추장 목도리에 지질방석에 움두 루마기를 입고 염병 삼 년을 앓다가 남의 집 대문 앞에서 불 한 모금 못 얻어 마시고 거칠을 쓰고 뒤통질 농”

어느 소설에 묘사된 가장 긴 육이란다. ‘착할 선(善)’을 실천할 학생의 입장에서 는 차마 옮겨 적기 힘든 육설이지만, 일본의 역사왜곡 행태와 되풀이되는 관료들의 망언을 보며 인내해야 하는 우리 국민들의 심정이 저 육과 같지 않을까.

소설에서는 부유한 집안이 사는 한 마을에 그 부잣집 잘못으로 어려움이 찾아 온다. 하지만 그 부잣집은 사과는커녕 일 골 한 번 내비치지 않았고, 마을사람들이 이 같은 저주 섞인 육을 했다.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단 한번 진정 어린 반성을 할 줄 모르는 일본이야말로 이 육을 들을 대상자와 다를 바 없다는 것에 반박할 대한민국 국민이 어디 있었는가.

영화 ‘귀향’은 차마 온전히 볼 수가 없었다. 나라를 강탈하고 민족혼을 말살시키기 위한 일본의 만행, 그 역사의 그늘 아래서 고통대는 민족의 설움과 아픔이 생생히 전해져왔다.

일제강점기 한국의 근대화에 이바지했

다는 망언을 비롯해 ‘독도영유권 왜곡 주장’, ‘임나일본부설’ 등 일본의 우경화와 점점 치밀하게 확산되고 있는 역사왜곡은 지하에 계신 김구 선생님께서 ‘버락’노하시라 일이다.

중국은 어떤가. 중국은 2002년부터 막대한 돈과 수많은 학자를 동원해 중국 동북 3성 지역(헤이룽장성·지린성·랴오닝성)의 역사와 문화를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동북공정’을 추진 중에 있단다. 고구려는 독립된 나라가 아니라 중국의 지배를 받은 지방정권이었다고 왜곡, 결국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 고조선을 비롯한 고구려와 백제의 뿌리인 부여, 역사상 가장 강대했던 고구려, 그리고 뒤를 이은 발해 등 모두 중국의 역사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역사왜곡 실상이 이렇듯 국내에서는 이념적 대결양상에 갇혀 역사교과서를 두고 갑론을박이 지루하게 이어지고 있는 듯하다. “이념이 밥 먹여주는 것 아니다”란 대다수 보통사람들의 푸념 섞인 불만에도 귀기울일 일이다. 미국 발전의 근간을 이룬 프래그머티즘을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으면 어떻까.

청소년들의 빈약한 역사의식에 대한 설

문조사 결과나 비판적 지적들이 언론을 통해 자주 이야기되곤 한다. 나도 예외는 아니지만 남다른 문제의식을 갖고 역사의식을 높여야 노력하는 편이다. 나와 내가 ‘우리가 되고 곧 사회를 이루는 중심이므로 나 한 사람의 역사의식 여하가 얼마나 중요한지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다.

“네가 만약 이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이 불효라고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안중근 의사가 옥중에서 사형집행을 기다리고 있을 때 그의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가 아들에게 쓴 편지의 일부이다. 어머니의 헤아릴 수 없는 큰 마음을 보고 한없이 부끄럽기만 했다. 한순간 총동으로 지면을 빌려 역사의식을 운운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수능이라는 교육현실의 굴레에 갇혀 숲을 보지 못할 수는 있다. 하지만 유명 연예인들에 대한 허망한 관심 못지않게 스스로 주체적 역사의식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친구들에게 읊소하고 싶다.

선조들이 값지게 물려주신 금수강산과 우리의 고귀한 역사를 온전히 지켜나가는 것이 후손의 도리이고 우리의 책무 아니겠는가.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無 等 鼓

우리나라가 군사독재에 신음하던 1980년대에는 국민의 눈과 귀를 막기 위한 ‘3S정책’이 자주 언론에 등장했다. 3S는 스크린(screen : 영화나 TV), 스포츠(sport), 섹스(sex)의 앞 글자를 딴 것이다.

동서양의 많은 독재자들은 대중을 마음대로 지배하기 위해 자극적이고 중독성 있는 3S를 적극 장려함으로써, 국민을 우민화(愚民化)하려는 시도를 해왔다. 80년대 당시 국내 언론에도 ‘군사정부가 3S를 활용해 국민을 우민화 하려 한다’는 주장이 실리곤 했었다.

서양의 경우 포르투갈이 3S와 비슷한 3F정책으로 국민의 정신을 조작하려 했던 사례가 알려져 있다. 1926년 당시 군인들이 정권을 장악한 포르투갈에선 헤성처럼 나타난 경제학과 교수 출신의 안토니우스 올리베이라 살라자르(1889~1970)가 단시일에 국가재정을 개혁한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아 총리가 됐다. 하지만 그는 곧바로 강력한 권력을 휘두르며 국정을 농단하기 시작, 1933년엔 총리의 해임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개헌’에까지 성공하면서 말 그대로 ‘합법적인 독재자’가 됐다.

살라자르가 ‘의회민주주의의 종말이 야말로 정치의 발전’이라고 공언하며 철권을 휘두를 수 있었던 데는 온 국민의 정치적 관심을 3F에 집중시킨 ‘고도의 정략’이 뒷받침됐다는 게 역사의 평가다. 살라자르는 Futebol(축구), Fátima(파티마 성모발현·종교), Fado(파두·포르투갈의 음악)의 3F에 아낌 없는 지원과 투자를 쏟아부음으로써 국민을 정치에 무관심하게 만들었다. 국민은 정치 대신 축구에 모든 관심을 쏟았고, 모든 정치적 문제를 종교에 의지하며, 정치적 좌절에 따른 분노와 슬픔을 파두로 해소했다.

요즘 우리나라에선 ‘힐링’(healing·치유 또는 회복)이 대세다. TV나 신문 등 온갖 언론과 인터넷에선 ‘힐링’을 주제로 한 각종 프로그램과 기사들이 쏟아져 나온다. 사람들은 TV로, 스마트폰으로 ‘떡방’을 보고 ‘태양의 후예’를 시청한다. 물론 ‘헬조선’에서 휴식이야 필요하겠지만, ‘힐링’이 사회적 대세로 등장한 것은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이 든다. ‘힐링’으로 포장된 ‘정신 의 마비’가 아니길 바란다.

/홍형기 정치부장 redplane@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열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2-0195)
정 치 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다 지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사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